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교정학개론 ㉔책형 해설: 김종택>

총평	필수과목으로 전환된 후 첫 번째 시험인 점과 지난해 시험의 난이도를 통해 예상할 수 있었던 난이도의 상승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상당히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문제 분포 역시 예상 밖으로 기본 이론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평이한 득점이 가능한 정도라고 보인다.
문제 분석	1. 교정학(13문제) - 형사정책(7문제) 2021년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 구성이 교정학-형사정책 비율에서 교정학(11-13문제)-형사정책(7-9문제)임을 고려하면 특이점은 없다.
	2. 법령(11문제) - 이론(9문제) 올해가 필수과목의 첫 해이고 지난해 문제에서 법령(15문제)-이론(5문제)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배분이다. 특히 이 때문에 많은 법령에서의 다양한 조문해석과 조문들 간의 충분한 인지에 관한 문제가 빠짐으로써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었다.
	3. 난이도 분석 [상(1) : 중(10) : 하(9)] 전반적으로 이론은 개념의 기본적 이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법규도 형집행법에 집중한 중요조항에 대한 문제로 비교적 평이하다. 심화된 이론이나 조문의 밀도 있는 해석 또는 판례의 입장을 묻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없었다.
	4. 법령의 문제 분석[형집행법(9문제), 소년법(1문제), 보호소년법(1문제)] 전반적으로 법령 문제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지만 그래서 형집행법에서 문제가 더 집중되었다. 특히 ‘작업과 직업훈련’ 파트에서 3문제가 나온 것은 조금 이색적이다. 법령 부분에서 가장 눈이 띄는 것은 보안처분 관련 법령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사실이다. 많은 보안처분 관련 법령에서 골고루 문제를 예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몇 문제를 예상하고 특히 지난해는 ‘보호관찰법’,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법’, ‘성충동약물치료법’에서 각 1문제씩 출제된 것을 고려하면 예상밖의 결과라고 본다.
	5. 이론 문제 분석 [범죄원인론(3문제), 범죄인처우모델, 소년사법, 누진제, 다이버전, 과밀수용해소방안, 교도작업에서 각 1문제] 법령문제가 줄면서 이론문제가 늘어났지만 모두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이었다.
	6. 분야별 문제 분석 [교정학서론] 범죄인처우모델 [시설내처우이론] 과밀수용문제 [시설내처우법규] 엄중관리대상자, 안전과 질서, 징벌 [수용자처우] 수형자분류(2문제), 누진제, 작업과 직업훈련(3문제),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X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X [형사정책서론] 다이버전 [범죄원인론] 통제이론, 아노미이론,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

	[범죄실태론] X [형사제재론] 형벌론X, 보안처분론X [형사사법정책론] 범죄예방론X, 범죄예측X [소년형사정책론] 소년형사정책 개관, 소년법, 보호소년법 이상 각 1문제 외부통근작업에 관한 법령문제를 제외하면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의외였다. 이는 형사제재론에서 형벌론과 보안처분 분야의 문제가 역시 하나도 없었다는 것과 함께 교정학의 본연의 영역에 좀더 충실한 문제 출제가 의도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교정시설내 처우에 보다 집중한 문제를 의도하였다고 생각한다.
예상과 당부의 말씀	먼저 교정직공무원 준비에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조직의 중요 근간인 사법행정의 보이지 않는 축으로써 교정인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향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당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정학개론만으로 말씀드려서 2022년 9급 시험은 예상보다는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응시자께서는 교정학개론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타과목에서 선방하여 합격선을 지켜내리라 보고 교정학개론에서는 상하위 득점자의 변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정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가져가면 합격에 좀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응시자분들이나 2023년도 교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의 결과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올해의 교정학개론의 출제 경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은 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큰 기조를 유지한 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교정학은 깊이 있는 이론이나 넓은 영역의 특별법의 세부적 내용을 묻지 않고 이론의 기본적 개념이해와 시설내처우에 관한 소수 법령에 대한 집중적인 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올해처럼 극단적으로 보안처분 분야의 법령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형집행법을 비롯한 중심법령을 바탕으로 보안처분관련 법령과 기타 교정분야 특별법령이 적절히 섞여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은 기본법령에 충실하고 기타 부수법령은 중추적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론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정학의 이론분야는 사실상 방대해서 공부를 깊이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출문제도 상당히 지엽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중심에는 기본적인 내용의 충분한 이해를 위주로 가급적 가볍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론분야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이 범죄원인론 파트인데요 역시 공부를 하려면 난해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각 이론의 특징과 흐름을 중심으로 기본적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정학에서는 문제 출제영역이 매년 중복을 피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부분은 다음해에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공부 범위를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가볍게라도 인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고 좀더 철저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부터 연속으로 징벌, 작업과 직업훈련 특히 외부통근작업, 안전과 질서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특별법 분야에는 소년법과 보호소년법은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2022년도 교정학개론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평이한 수준이었고, 까다롭다거나 예상밖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정기본법령과 기본서 수준의 이론을 충분히 정독하신 분에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정직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보내는 선의의 신호탄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문제 수준을 오히려 낮춘 듯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정직을 준비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	--

문 1.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부(富)의 성취는 미국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 ② 목표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 ③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 ④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답 ④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부의 성취를 위한 합법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는 하류계층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상류계층의 범죄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 범죄원인론 중 가장 빈출되는 이론 중 하나인 아노미이론에 대한 기본개념을 묻는 문제이다.

문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난이도: 하)

-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 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

③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④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답 ② 범죄인을 환자로 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처벌이 아닌 치료를 통한 범죄성의 제거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모형·치료모형·갱생모형'이다.

- 범죄인처우모델의 기본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문 3.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답 ③ 비시설수용은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것이다. 소년 전담시설도 역시 교정시설로서 시설수용에 해당한다.

- 소년사법의 현대적 실천방안으로 논의되는 4D 혹은 5D에 대한 문제로서 각각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결국 정확히 이해만하면 풀 수 있는 개념문제이다.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답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징벌 파트는 빈출되는 경향이 있다. 교정직의 실무적 연관성이 높은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징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할 필요가 있다.

문 5.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난이도: 하)

- ① 고사제(probation system)
- ②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
-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답 ① 고사제는 기간제라고도 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교도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진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책임점수를 소득점수로 소각하여 진급하는 점수제와 구별된다. 잉글랜드제, 아일랜드제, 엘마이라제가 점수제에 속한다.
- 역시 기본개념문제이다. 누진제의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지를 묻는다.

문 6.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답 ① 다이버전은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가진다.
- 다이버전의 부정적 측면과 그 영향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제도에 대한 이해도문제이다.

문 7.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④ 선별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답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에 의하면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엄중성보다 확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즉 교정시설 수용 전이라면 반드시 엄중한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도 비구금적 제재를 통해 형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이미 수용된 범죄자는 지나치게 엄격히 형기를 채우기 보다는 일정한 기간 이후 조기 석방을 함으로써 형벌의 목적과 구금인구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 블럼스타인의 과밀수용 해소방안의 세부내용을 묻는다. 각 내용의 의미와 더불어 형벌의 제지효과에 대한 확실성과 엄중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수용인구감소전략과 연결지을 수 있는지 묻는다. 단순한 이론 내용의 나열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난이도가 약간 있지만 다른 지문과 비교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 8.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 ②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 ③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 ④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답 ①. ②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행형상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노무작업은 비교적 단기 작업이 많고, 작업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행형상 통일성을 갖기 어렵다. ③ 도급작업은 대규모 공사의 경우가 많아서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지만, 공사에 적합한 작업수준의 기술자를 교정시설에서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④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고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경우 다른 민간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압박할 수 있다.

- 교도작업에 관한 이론문제이다. 작업과 직업훈련 분야는 매년 출제되다시피 하는 파트로써 중요성을 띤다. 형집행법상의 내용과 더불어 올해는 교도작업의 그 내용상 장 단점에 대해서 물었다. 작업의 종류인 직영, 위임, 노무, 도급작업에 대한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문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

를 20년으로 본다.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답 ③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 분류심사 법령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는 지를 묻는다.

문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답 ② 사형확정자는 자살방지,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사형확정자+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의 자살·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형확정자+수형자): 사형확정자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중요내용을 인지하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사형확정자의 혼거수용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미결수용자와 혼거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문제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 11.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난이도: 하)

ㄱ. 서덜랜드(Sutherland)

ㄴ. 나이(Nye)

ㄷ. 애그뉴(Agnew)

ㄹ. 라이스(Reiss)

ㅁ. 베커(Becker)

① ㄱ, ㄷ

② ㄴ, ㄹ

③ L, C, R

④ C, R, O

답 ② 나이(Nye)는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통제이론을, 라이스(Reiss)는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한 통제이론을 주장했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이론을 주장한 학습이론의 대표자이고, 애그뉴는 미시적 환경론의 하나인 일반긴장이론으로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긴장(스트레스)에 의한 범죄를 설명했다. 베커는 낙인이론가의 한 사람으로 범죄인이라는 사회적 주지위에 의한 낙인과 그로인한 일탈을 주장했다.

이 밖에 통제이론 학자로서 레클레스, 맛차와 사이크스, 허쉬 등이 있다.

- 범죄원인론에서는 각 이론의 체계적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각각의 이론이 가지는 기본적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에서 통제이론에 속하는 이론과 그 학자를 정리하고 있어야하고 나머지 이론과 구별하여야 한다. 이론의 분류체계를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문 12.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답 ④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 소년법상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적 내용이다. 특히 정답인 검사에게서 송치된 사건을 소년부가 다시 송치할 수 있는 조항은 기본서에서 충분히 강조된 점에서 득점은 무난했을 것으로 본다.

문 13.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①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②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답 ② 법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한다는 주장은 낙인이론의 설명이다. 허쉬는 통제이론 중 하나인 사회통제이론(사회유대이론)을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의 유대가 범죄를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 범죄원인론의 각 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이다. 원인론의 여러 이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낙인이론, 아노미이론, 그리고 통제이론 중 허쉬의 이론의 기본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또한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일반이론에 대해서도 최근에 자주 부각되고 있다. 각 이론의 깊은 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골자에 해당하는 기본적 내용을 물었다. 정답 지문에서는 통제이론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낙인이론의 주장을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를 수 있게 난이도를 주었다.

문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하)

-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답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정역의 의미가 있는 징역형과 신청에 의한 작업이 가능한 금고형·구류형의 차이를 안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

문 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난이도: 하)

- ①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②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 ③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④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답 ④. ① 보호장비와 보안장비의 사용요건이다. ② 보안장비 ③ 보안장비

- 형집행법상 무기사용 요건에 대한 숙지 여부를 묻는다. 형집행법상 안전과 질서 파트에서 각각의 보호장비, 보안장비, 그리고 무기의 사용요건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문 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답 ③.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법령의 내용 이해에 관한 질문이다.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그 선정과 해제 방법을 물었고, 절차적 조항으로 예외적인 경우인 미결수용자에 있어서는 분류처우위원회가 아닌 교도관회의에 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역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중요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문 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답 ④ 소장은 작업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기준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즉,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이 원칙적 대상이다.

- 비교적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외부통근 작업에 관한 법령을 숙지하고 있고 소장의 외부통근 작업자 선정에서의 막대한 권한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었다.

문 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이도: 중)

-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 ③. ①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② 20일 이내의 근신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등에게는 그 기간 중 2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④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호소년 등의 이탈·난동·폭행·자해·자살, 그 밖에 보호소년 등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보호소년법의 중요조항을 숙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특히 2번 지문에서 20일 이내의 지정된 실 안에서의 근신 징계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되는 3가지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약간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친절하게도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보호장비 사용의 원칙인 징벌수단으로서의 사용 금지를 나란히 열거하여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기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

문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난이도: 중)

-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ㄷ, ㄹ, ㅁ

답 ④ ㄱ.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ㄴ. 추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 수형자분류 중 부정기재심사에 관한 정확한 숙지를 묻는다. 이미 출제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부정기재심사 사항을 반복적으로 정독했다면 정답을 택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보인다.

문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난이도: 상)

-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장려금을 석방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답 ① 외부직업훈련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게만 허용된다.

- 각 지문에 관련한 법령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다. 특히 1번 지문의 경우 외부기업체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 선정과 혼동할 수 있어서 좀더 세심한 법령 공부が必要했다. 2번 지문도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이 2일간 작업 면제에 해당하고 수형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점, 3번 지문은 작업장려금을 석방전이라도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 4번 지문은 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과정별 인원을 정한다는 점을 알아야 해서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법령의 전반적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여서 각 지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수험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다.